

짧은 수업시간, 적지 않은 학습량: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 강의 경험 (공모 당선작 요약)

박수정*

북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스웨덴 나는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에서 6개월간 공부하며 ‘정치이론’(Political theory)과 ‘스웨덴 정치’(Swedish Politics),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Politics), ‘세계화와 민주주의’(Globalization and democracy)의 네 과목을 이수했다

특집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
과 02학번

수업시간은 짧게, 학습 효율은 높게

스톡홀름대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의 수업을 동시에 한 학기 내내 듣지 않는다 각 과목의 수업은 대체로 5주 정도면 끝나고, 한 과목이 끝나면 그 다음 과목 수업을 받기 시작하는 식이다 1학점에 1주일씩, 5학점짜리 수업이 대부분이고, 한번에 한 과목씩 한 학기 동안 최고 네 개(20학점)의 수업을 듣는 것이다 진행 속도는 빠르지만 여러 과목에 시간과 생각을 분산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학습 효율이 높다 학기 단위의 중간·기말고사가 따로 없고 각 강좌가 끝날 때마다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언제나 시험이 코앞에 있다 이 또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강의실 밖에서의 학습이 큰 비중

충분한 수량의 영어 강의로 외국인 학생의 참여 촉진

스웨덴은 비영어권 국가다 하지만 스톡홀름대학교에는 영어 강의가 상당히 많다 정치학과는 특히 학부에만 총 21개의 영어 강의를 개설 외국 학생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부 수업 전체를 통틀어도 영어 강의가 4~5개에 지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면 수업 자체가 알차고 흥미로워진다 예를 들어 ‘스웨덴 정치’(Swedish Politics) 수업 첫 날의 주제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였는데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유럽 정치 학의 최고 관심사인 유럽 통합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유럽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이 수업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수업 시스템을 설명하는 카탈로그에 “1학점은 폴 타임 1주일(주당 40시간)”이라고 적혀 있어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수업이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알고 보니 그 40시간은 “강의와 세미나, 독립적인 학습을 포함한” 시간이었다 실제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은 일주일에 4~6시간 정도다

여기서 ‘독립적인 학습’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각자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시간 또한 일연히 강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강의가 주당 40시간의 ‘폴 타임’으로 간주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다른 과목과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그러나 강의를 주당 4~6시간만 들으면 되는 스웨덴의 학부 생활은 그다지 한가롭지 않다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나눠주는 읽을거리들을 빼고도 한 과목당 교재의 양이 700쪽에서 900쪽 가량 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외국어(영어)로 된 교재를 이만큼 읽기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강의가 세미나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부를 계획해 했다가는 세미나에서 한마디도 못하기 심상이다

세미나 수업의 진행 방식

강의 계획서를 보면 수업이 '렉처'와 '세미나'로 구분되어 적혀 있다. 물론 렉처에서도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가고 가끔 간단한 조별 토의와 발표가 있기도 하지만, 세미나는 온전히 학생들의 토론에 할애된 시간이다.

담당 교수는 세미나 1~2주 전에 주제 및 핵심 질문, 읽어 와야 할 교재의 범위를 공지한다. 수업 주제 이외에 세미나와 관련하여 읽어 와야 할 글(최근 이슈에 관련한 논문이나 칼럼 등)을 웹페이지에 올려놓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정치적 세계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경우, 「국제기구가 민주적일 수 있는가?」(Dahl)이라는 논문과 주제의 몇몇 단원을 읽어오라고 하면서, 이를 텍스트의 내용을 상호 연관시킨 질문을 세 가지 제시하는 식이다.

이처럼 교수가 미리 쟁점을 짚어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쟁점을 찾고 질문을 던질 기회가 차단되는 단점은 있다. 그 대신 학생들이 지엽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핵심 쟁점에 관해 충분히 조사하고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것이 이점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에 많은 시간 할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 정치학과 커리큘럼에서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여성주의 담론이다. 'Gender, equality and citizenship'처럼 젠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과목도 있고, 그밖의 정치학과 모든 과목에

서도 여성주의적 관점은 중요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정치 이론'(Political theory)에서는 플라톤과 루소 등 주요 사상가에 관해 배울 때마다 여성주의자들이 이 사상가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드시 짚었고, 마지막 세미나는 온전히 여성주의 이슈에 할애되었다. '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남성의 지배를 강화하는가', '성별 차이가 대학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가' 등이 이 날 세미나의 주제였다. '국제정치학' (International Politics)에서도 중요한 국제정치적 사건을 분석할 때 현실주의·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와 더불어 여성주의적 관점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한국의 정치학 커리큘럼에서는 정치학의 중요 이슈인 젠더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것 같다.

이상이 스톡홀름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보고 느낀 바다. 아무 쪼록 내 경험이 더 좋은 학부 강의를 만드는데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